

주택대출 막차 수요...8월 2조5천억원 증가

개인 신용대출도 전월비 1조3899억 ↑...1년만에 최대폭 가계부채 급증세는 둔화...5대 은행 신청건수 절반으로 '뚝'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받기 어려워지기 전에 막차타기 수요가 몰리면서 8월 주택담보대출이 약 2조5000억원 늘었다. 개인 신용대출도 1년 만에 최대폭 증가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따른 풍선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개 주요은행 8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69조13억원 을 기록, 전월 말(366조5359억원) 대비 2조 4654억원 증가했다. 8월 증가 규모는 지난 6월(2조7486억원)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크다.

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정부 부동산 대책이 본격 적용되기 전에 대출을 받

으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달 3일부터 투 기지역(서울 11개구, 세종시)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 부채상환비율(DTI)이 모두 40%로 강화 됐다.

8월 개인신용대출과 개인 사업자 대출 도 많이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93조9188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 3899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2조 3799억원) 이후 1년 만에 최대 증가규모다.

여기에 지난 7월 27일부터 영업을 시작 한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까지 포함하면 8월 개인신용대출 증가 폭은 더 커진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한 달 만에 개인신용대 출 잔액이 1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5대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도 192조 5822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2140억원 증 가했다. 지난 7월(2조3938억원)과 6월(2조 3166억원)에 이어 올해 3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금융권에서는 투기지역은 부동산대책 발표 후 바로 대출규제가 적용되다 보니 주택담보대출 부족분을 개인신용대출이 나 개인사업자대출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 았을 것으로 분석한다.

집을 살 때 신용대출 활용은 LTV 회피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금지 돼 있지만, 은행에서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급증세 는 지난달 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본격 시작됐고, 신

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도 금융당국 에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 다.

실제로 LTV·DTI 기준이 강화된 이후 인 지난달 23~25일 5대 은행에 접수된 주 택담보대출 신청 건수는 하루 평균 1635건 으로, 지난달 1~3일 신청 건수 평균(3070 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진용섭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21일 간 부회의에서 신용대출과 개인 사업자 대출 급증을 두고 "대출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대출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대출규제가 본격 시행됐고 가계 부채 대책이 추가로 나올 예정이어서 앞 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꺾일 것으로 보 인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연합뉴스

광주·전남 준대기업집단 3곳 지정

중흥건설·호반건설·금호석화...공시대상 기업집단 총 5곳

자산 500억 이상 10조원 미만 기업집 단(준대기업집단) 26개 기업 중 광주·전 남 관련 기업은 3곳으로 나타났다. 또 금호아시아나와 부영 등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 단)까지 포함하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총 5개로 지난해보다 1개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자산총 액 500억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재벌)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시대상 기업 지정은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 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들 기업집단은 기 본적으로 공시대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다만 대기업집단은 상호·순환출자, 재무보증 등의 제한도 함께 받는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눈에 띄는 기업 은 이번 처음으로 지정된 호반건설이다. 호반건설은 전남 건설업체로 국내 주택사업 부문 호황으로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면서 준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 렸다. 자산규모는 약 7조원으로 자산총 액 순위 47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 광주 건설업체로서는 처 음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성장 세를 보이고 있는 중흥건설 역시 올해 도 지정됐다. 이 회사는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린 지 2년 만에 자산총액이 5 조6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늘었 다. 자산총액 순위도 지난해 40위에서 35위로 5단계가 올랐다. 계열사는 중흥 주택, 시티건설, 나주관광개발 등 49개 사에서 13개사가 늘어난 62개사로 집계 됐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로부터 분리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에 포함된 금호석유화학은 자산총 액 5조7000억원으로 늘었으나 자산총 액 순위는 전년보다 3단계 물러났다. 계열회사는 금호미쓰이화학과 피앤피화학, 폴리켄, 철도솔라 등 11개사다.

한편 네이버·넥스 등 국내 굴지의 IT (정보·기업) 기업들과 SM·동원 등 5개 사가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서면서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됐으며 주요 계열사 매각 등으로 자산 총액이 준 현대 는 준대기업집단에서도 제외됐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전, 에너지 플랫폼 확장

조환익 사장, 그리드위즈·SKT네트웍연구원 협업 도모

한국전력이 에너지 플랫폼 확장에 나 선다.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은 지난 1일 Digital KEPCO 구현을 위하여 경기도 분당구에 소재한 4차 산업혁명 기술기업 인 그리드위즈와 SKT네트웍 연구원을 방문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 력에너지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 를 확장하고 ICT기반의 Digital KEPCO'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에너지통합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리드위 즈는 4차 산업혁명 Start-up 기업이며, 전 기차를 이동형 ESS로 인식하고 전기차를 이용한 양방향 충전전 기술인 'V2G(Vehi cle to Grid)'를 이끔고 있는 기업이다.

SKT네트웍 연구원은 국내업체 최초 'AI음성인식 스피커' 출시 및 'AI병원 구축' 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IoT)분야에서 한전과 Digital KEPCO 인프라 기술 연구를 협업하고 있다.

조환익 사장은 그리드위즈 방문에서



조환익(가운데) 한전 사장이 지난 1일 경기도 분당 SKT네트웍 연구원 AR/VR 전시관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클라우드 소 싱을 통해 창업에 성공하는 사례가 더 많 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기업방문을 통해 향후 에

너지마켓플레이스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의견 수렴, 수요관리사업 협력 및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 사업 활성화와 협업 등을 통해 전력에너지 4차 산업혁명 추진을 가

속화하고, 에너지산업의 미래먹거리 창 출을 주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새로 운 일자리 창출에도 견인차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

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상표권 '산은 제시안' 수용

다우주 매각가 인하 등 결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중국 더블 스타와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계약과 관련한 산업은행 제시안을 전격 수용하기 로 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이 제안이 채 권단 안을 전격 수용한 것은 아니라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지난 1 일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과

관련한 산업은행의 제시안을 전격 수용하 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산업은행에 추가로 발송했다.

앞서 금호산업은 지난달 30일 산업은행 이 제시한 상표권 계약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내용 의 공문을 산은에 보냈다. 조건은 금호타 이어 미진출 지역 상표권 사용 제한, 회계 장부 열람 등이었다.

금호산업은 이날 이력 일부 조건에 대해

"금호"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 한의 장치로 유사 계약 시 관행상 표현되 는 문구였다"면서 "하지만, 혼선을 불식 시키는 차원에서 기존 산업은행 제시안을 전격 수용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이 최근 제시한 계약안은 상표 권 사용 요율은 매출액의 0.5%, 사용 기간 은 20년이었다. 이는 박삼구 회장이 당초 요구했던 상표권 사용조건과 같다. 다만, 중국의 더블스타가 요구한 사용 요율인 0.

2%와의 차액을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에 매년 보전해주기로 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다음 주 중반 께 주주총회를 열어 매각가격 인하와 상 표권 사용계약 관련 최종 입장을 정할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블스타는 최근 금호타이어 실적이 약 속한 것보다 나빠졌으며 매각가격을 종전 955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16.2% 낮춰 달라고 요구했는데 인하 폭은 산업은행과 더블스타간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 으로 보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JB금융지주 회장-광주은행장 분리

지주회사 중심 시너지 창출...차기 행장 송중욱 부행장 확정

JB금융그룹이 조직 체계 정비로 경쟁 령 강화에 나섰다.

JB금융그룹은 지난 1일 성장전략 추 진과 제2의 도약을 위해 JB금융지주 회 장직과 광주은행장을 분리기로 결정했 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중심 의 그룹사간 시너지 제고와 창출에 박 차를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은 지난 23일과 28일 각각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를 열어 지주 회장과 광주은행장 분리인 선을 결정하고, 송중욱 광주은행 부행장 을 차기 광주은행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동안 조직 안정화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지주 회장이 광주은행장을 함께 맡아 왔다.

이번 지주회장과 은행장 분리를 계기 로 미래 사업에 대한 지주회사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도모하는 조직체계 정비 를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차수익에 편중된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비이자 수익원 창출 등의 수익중심 경영 및 고객기 체고를 통해 주주 가치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를 통해 새 로운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그룹 디지털화 전략 수행 및 지역 적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해외사업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며 "특히 지주회사 중심의 그 룹사간 시너지 제고와 창출에도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은 JB우 리캐피탈 인수를 시작으로 광주은행, JB자산운용의 성공적 계열회사 편입을 통해 그룹의 외형을 확장해왔다. 전북 은행과 광주은행의 역외진출과 해외진 출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도 성공 하는 등 JB금융지주 설립 당시 15조원 에 불과한 그룹의 자산규모를 50조원 수준의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시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로또복권 (제770회)

| 당첨번호 | 2등보너스 숫자 | |
|------------------|---------------|-----------|
| 1 9 12 23 39 43 | 34 | |
| 등 위 | 당첨금(원) | 당첨자수 |
| 1 6개 숫자일치 | 2,163,099,329 | 8 |
|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 38,455,100 | 75 |
| 3 5개 숫자일치 | 1,252,882 | 2,302 |
| 4 4개 숫자일치 | 50,000 | 108,450 |
| 5 3개 숫자일치 | 5,000 | 1,717,526 |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